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ACA-8) 참관기(I)

Report on the Eigh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본협회 국제위원회

올해 아시아 건축 총회는 적도에 가까운 열대의 나라 스리랑카의 수도 콜롬보에서 개최되었다. 총 회원국 15개국 중에서 몽고, 마카오는 국내 사정에 의해 참석치 못하였고 본 협회에서는 김영수 전회장 이정근 국제위원장 이근창 위원이 이사회 대표로, 김지덕 위원 유건 위원이 교육위원회 대표로, 오근석 위원과 협회 사무국 손경익 대리가 읍저버로 참석하였다. 학생잡버리에는 97년도 학생부문 건축상 수상자와 자원자를 포함 6명이 합류하였으며 본 협회 회원 3인도 읍저버 자격으로 참관하여 총 16명이 총회에 참석하였다. 내전으로 수도인 콜롬보 시내 가로 주변에는 무장한 남·녀 군인이 검문, 검색을 하고 있었으며 주요 건물의 출입도 통제된 사회주의 국가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분위기였다.

ARCASIA ACA-8 Programme(8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Srilanka 10~14th Nov. 1998)

Date	Type of Meeting	Time	Venue	Tea/Lunch Venue and Time
10 th Nov	Fellowship Meeting ARCASIA	9:00 am - 5:00 pm	Gregory Room	M/Tea 10:30~10:45 am
	CAA Meeting	5:30 pm - 7:30 pm	Gregory Room	Lunch - on Golden Pond From 1:00 pm to 2:00pm
	Office Bearers Meeting ARCASIA	5:00 pm - 6:00 pm	Regency Room	Afternoon Tea 3:30~3:45pm
	Meet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RCASIA	6:30 pm - 7:30 pm	Regency Room	
	Welcome Cocktail Fellowship Dinner	7:30 pm 8:00 pm	On Golden Pond Nobelesse-Trans Asia	
11 th Nov	Inauguration of ARCASIA Council Meeting	9:00 am - 10:00 am	Crystal Room	M/Tea - 10:30 - 10:45 am
	ACASIA Council Meeting (Group Photo)	10:30 am - 5:00 pm	Crystal Room	Lunch on Golden Pond 1:00pm to 2:00pm
	ACAIE Meeting (Group Photo)	10:30 am - 5:00 pm	Gregory Room	Afternoon Tea 3:30 - 3:45 pm
	Deans & Heads of Arch. Institutions & Universities	2:00 pm - 6:00 pm	Regency Room	
	SAARCH Council Meeting (Group Photo)	5:30 pm - 6:30 pm	Gregory Room	
	Cocktails	7:30 pm	On Golden Pond	
12 th Nov	ACASIA Council Meeting Contd.	8:00 am - 4:30 pm	Crystal Room	M/Tea 10:30 - 10:45 am
	ACAIE Meeting Contd.	9:00 am - 3:30 pm	Gregory Room	Lunch On Golden Pond 1.00pm to 2.00pm
	Inauguration Congress ACA-8 Cocktail Buffet	6:00 pm - 9:30 pm 9:45 pm -	BMICH Main Auditorium On Golden Pond	Afternoon Tea 1:00 - 2:00 pm
13 th Nov	Inauguration	9:00 am	Crystal Room	M/Tea 10:30 - 10:45 am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Sessions	9:15 am - 10:45 am	Crystal Room	Lunch Roof Top 1:00pm - 2:00pm
	Mahaweli Marine Presentation	10:45 am 11:00 am	Crystal Room	
	ARCASIA Students Prizes- Judging	9:00 am 12noon	S.L.I.A. Auditorium	
	Cocktail	7:30 pm	Sapphire Ballroom Intercontinental	
14 th Nov	Inauguration	9:00 am	Crystal Room	M/Tea 10:30 - 10:45 am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 Sessions	9:15 am - 5:00 pm	Crystal Room	Lunch - Roof Top 1:00 - 2:00pm
	Asoka Glass Presentation	10:45 am - 11:00 am	Crystal Room	Afternoon Tea 3:30 - 3:45 pm
	Award of Students Prizes	8:30 pm - 9:30 pm	Show Boat	
	Fellowship Night Dinner	8:30 pm	Roof Top Ballroom Taj	

제8회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보고

ACASIA ACA-8

이정근 / 본협회 국제위원장

by Lee Jeong-Keun

하루를 오전과 오후의 2개의 회기로 나누어 이틀동안 진행하였다. 이중 첫 번째 회기의 초반에는 개회식 행사가 있었고 마지막 회기의 후반 부에는 토론과 보고자의 보고가 있었다.

각 회기는 회기 집행장이 발표자들을 소개하고 발표자의 발표시간 조절 및 발표후 2~3명의 질문을 받아 사회하는 역할을 하였다.

대회의장 Lakshman Alwis 교수의 개막 인사후에 촛불켜는 의식이 이어졌고 콕스씨의 발제강연을 시작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13일 오전 - 개막회기, 오후 - 산업에서의 건축사, 14일 오전 - 건축사를 위한 경영학, 오후 - 건축사 교육의 혁신, 마지막 회기의 중반에는 보고 책임자 비두라 스리나무니씨가 대회 발표의 요지를 요약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발표자는 13명으로 이중 홍콩의 터니 리 교수는 원고만 제출하고 참석치 않아 발표문만 제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전반부는 건축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것이었고 후반부는 건축교육에 대한 것이었는데 13개의 발표문중 건축사의 역할에 대한 것 5편, 건축교육 4편, 기타가 4편이었다.

발제강연

호주의 필립 콕스가 대회주제와 동일한 제목 하에 건축과 도시 및 자연과 문화, 그리고 건축사의 역할과 건축사의 교육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는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화가 인간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일별하고 Anwar Fazal을 인용하여 균형과 조화의 문화, 신용과 배려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적인 책임의 문화를 건축전문인의 덕목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 30년간 건축 분야에서 일어난 두가지 큰 변화중의 하나는 건축전문직 수행에 있어 종전의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설계·건설이 통합된 과정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컴퓨터와 정보기술이 건축에 대한 우리의 지각과 창작의 범주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이다. 건축사들은 엔지니어들처

럼 경영과 수량의 개념을 배우기 보다는 주로 창작성과 기술적인 면에만 치중하여 훈련을 받아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건축직업 환경에서 호주의 예만 들더라도 건축설계 분야에서 중간규모의 사무실은 도태되고 대형 사무실과 소형 사무실로 양분화되고 있다고 한다. 그는 다가오는 세기에 있어서 건축 전문인이 지향할 바는 자연환경에 대한 배려, 에너지에 대한 관심, 서로 다른 문화간의 교류와 공존, 다른 전문 직종 또는 다른 건축사간의 상호보완적인 협동, 시장경제의 경쟁체제에의 유연한 적응성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고이치 나가시마는 미래사회에서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계성과 지역성의 조화라고 못 박았다. 정보화와 전자매체의 발달로 인해 인간 생활의 모든 면을 침윤해 가고 있는 세계화가 한 극을 이룬다면 사람의 일상활동과 지역문화를 밀받치고 있는 그러나 그 존재가 위협받고 있는 지역성의 역할을 재평가하는 필요성이 다른 하나의 극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다가오는 새로운 세기에 있어서는 은밀한 대국적인 차원의 힘들과 전자매체에 의해 성립한 가상의 세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과소평가되고 부당하게 무시되어 온 지역문화와 구체적인 장소성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지역성을 회복하는데 인간의 에너지와 의지력이 모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리랑카의 실바의 발표요지는 스리랑카 건축 유적지의 보존에 대한 것으로 유네스코에 의해 1978년에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기원전 2세기까지 그 기원이 올라가는 아누라다푸라, 폴로나루바, 칸디 등 3개의 옛 수도를 연결하는 문화 삼각지대의 발굴과 보존 및 연구, 홍보에 대한 경과와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십년 전에는 다방면의 종합계획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고 답보상태에 있는 만큼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것이 계획대로 집행되도록 자국 정부에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캠페인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는 내용이었다.

인도의 비네이는 외국 건축사들이 아카시아

지역에서 실무에 참여하는 조건과 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아시아 국가들이 공통의 정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건축가 연맹에서 전문직 실무위원회(PPC)가 이 문제를 다루듯이 아카시아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기구가 있어 이 주제에 대한 적합한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건축사를 위한 경영학

전체 발표내용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이 건축사들에게 많이 부족한 경영에 대한 논의였다. 이들 발표들의 전반적인 시각은 아시아에서의 건축실무 관행과 교육이 사업환경의 현실과 매우 동떨어지고 변화에 적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파라다임'의 혁신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세계화의 추세와 정보기술 산업의 대두는 건축사에게 경영력과 지도력의 면에서 많은 관심과 배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건축사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파라다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 건축사는 다른 산업과 상호의존적이다. 우리는 건축사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경력과 다른 많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인 사무영역에서 우리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과시하기 전에 고도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건설산업에 도움을 주는 지식과 기술,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축사는 좀 더 사무소의 조직과 가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생산품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으며 회사(사무소)는 제품을 삼는 수레가 아니고 오히려 제품이 사무소를 끌고가는 수레라는 것이다. 건축사는 미래를 창조하는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전문직 모델을 만들어 사회의 필요에 밀착된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사는 미래를 창조하는 지도자로서의 새로운 전문직의 모델을 만들어 사회의 필요에 응하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의 건축적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건축의 사업성을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축훈련의 쇄신

건축교육에 대한 논자들은 건축사의 역할구조에서 처럼 오늘의 산업환경이 요구하는 새로운 건축전문직의 실상에 대응하지 못하는 교육현실을 반성하고 변혁을 요구하며 새로운 교육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의 건축교육은 2차 대전후 식민통치의 종식과 더불어 시작된 경제적 팽창에 맞추어 재건사업의 수요에 응하기 위해 서구의 예를 모델로 하여 성립되었다. 서구의 건축교육은 바우하우스와 보자르에

기원하는 것으로 설계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역사이론, 건축과학, 구조 등의 지원과정을 배정하는 것이 근간이다. 그러나 이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사회경제의 조건은 복잡하고 다기한 기술과 복합용도 및 고밀도, 에너지 소비, 가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건축사는 이제 마스터 빌더가 아니고 문제해결사여야 하며 복합적인 과정에 적응하여 팀의 일원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설계스튜디오가 가진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단점이 노출되곤 한다. 첫째, 설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술과 역사적인 지식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둘째, 다른 대안 코스(과목)를 많이 희생시킨다. 셋째, 표현과 외양에 대한 강조가 건축의 복합적 차원과 균형이 맞지 않는다. 넷째, 현재 우세한 도면형식, 모형,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은 실제 건물 의 건설 등 조건과 동떨어져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많은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결국 미래에 출현할 건물과 재료 및 사회적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이 보다 과감하게 실험적이어야 하고 교육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의 테이 켈슨은 아시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 아카시아 건축학교를 2000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그는 아시아의 학생들을 서구 학생들에 비해 그 문화적 특성과 성장과정의 차이 때문에 권위에 대한 의식과 자발적 동기의 특성에 있어 매우 다르다는 것이다. 설계스튜디오 교육이 미적인 감각을 키운다는 것은 오류이며 스튜디오는 단순히 미적인 혼란을 재생산한다는 것이다. 형태 창조에서는 내포성(Connotation)이 외포성(Denotation)을 압도하여서 의미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형태와 공간의 외포성(표현화)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단순 형태를 이용해 실제와 기능성의 우위성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구상하는 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직접 지어서 수확과정 기간동안 그 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학교는 연구개발의 중심이 되어 사회와 산업의 필요에 응해야 하며 이 아카시아 건축학교에서 개발된 교육과정은 이 지역의 여타 교육기관에 파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안지 쉰 교수가 발표한 심천의 건축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는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심천시는 불과 20년전(1979)에 시로 출발했고 건축대학은 1983년에 설립되었지만 심천의 경제적 팽창과 급격한 건설기회의 대두에 맞추어 건축의 소요 인력을 배출하고 괄목할 만한 연구개발 실적을 이룩하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미 40년전에 영국에서 주장된 바 있는 의과대학을 모형으로 한 건축교육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건축대학과 자매기관으로 건축설계

원이 설립되어 교수가 연구와 실무 및 교육과정에 순환적으로 참여하여 이 세 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각각의 부문에 상승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계원에서의 수입은 학생들의 연구여행 및 장학보조, 교수들의 연구여행 및 해외발표 등에 배분되기도 하며, 연구의 축적으로 인해 더 많은 중요한 설계를 수행하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는 것이다.

종합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8회 건축사대회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두 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첫째, 내년에 우리 협회에서 주관하게 될 아카시아 포럼을 어떤 내용과 형식으로 끌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스리

랑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면 성의를 다 했다 할 수 있고 주제가 주는 메시지도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행면에서 발표자의 수가 너무 많고 회기별 발표의 배분이 불규칙한 점 등에서는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영어를 일상언어로 쓰지 않으므로 의사전달방법과 진행에 많은 고려가 필요하며 예산을 적절히 배분하여 이에 알맞은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제로 논의된 건축사의 전문직에 대한 새로운 상의 확립과 새로운 교육 과정에 대한 검토는 우리 사회에서도 매우 시기적으로 절실한 주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면의 논의가 긍정적으로 전개되어 다음 세기에 대응하는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제19차 아카시아 이사회 참가보고

19th ACARSIA Council Meeting

이근창 / 본협회 국제위원
by Lee Keun-Chang

개회

제 19차 아시아 건축사 이사회는 1998년 11월 11일, 12일 양일간에 걸쳐 타지 사무드라 호텔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장의 개회 선언에 이어 Sri Lanka의 전통적인 점화 의식을 시작으로 이사회, 교육위원회, 학생멤버가 동시에 정해진 장소에서 시작되었다.

현 협의회 회장인 Mr. Surath Wickramasinghe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새로운 세기를 맞을 때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땅에서 추출된 자원을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환경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무절제하게 건축물에 사용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병행해서 연구하여 각 나라에서 특히 개발도상국이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땅을 사용하여 축조되는 건축물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건축가들의 역할을 힘주어 이야기했다. 뒤이어 국제건축가협회(UIA) 감사(Secretary General)로 있으며 차기 회장에 입후보할

Mr.Sgoutas는 축사에서 전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건축에 관련된 광의의 목적과 상식적인 행위에 부합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며 이는 각국이 처하고 있는 문화와 고유의 유산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건축가의 기본이 되는 교육과 영역 업무의 절차와 기준은 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같은 UIA의 입장을 설명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과 동참을 강조하였다.

계속해 영연방 대표, 전 AIA 회장, 오스트리아 건축사협회 회장, 스리랑카 신세대 장관(Ministry of New Generation)순으로 축사가 이어졌는데 공통적으로 각국별 정의와 업무가 상이한데 Profession을 어떻게 척도할 것인지, 건축물의 설계와 환경보호와 어떻게 연계하여 전문업을 적용시킬 것인지, 자유무역에 따른 건축설계 영역의 세계화의 방법은 무엇인지, 아시아 국가의 확고한 입장과 권리의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여러사항이 심도있게 이사회를 통하여 의견 개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하고 본 기구가 아시아 건축

사의 입지와 책임을 정리하는 단체로 발전하기를 기원하였다.

본 회의

본 안건 토의에 앞서 1997년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Forum 9의 회의록은 일부 오타를 수정하여 통과되었다.

회의 Agenda에 관한 사항은 미리 배부된 순서에 의하기로 하고 재무 보고가 끝난 후 다음 사항이 논의되었다.

1. 회비 인상건

현재 회원국 당 미화 500달러씩(일부 회원국은 GNP를 고려 250달러 또 100달러씩) 납부하고 있는 회비가 운영비로 충분치 않아 15% 인상이 제시되었는데 일부에서는 각국의 GNP 또는 GDP에 의해 차등 납부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현재 혼란한 환율이 재정비되고 신입 회원국들의 참여를 고려하여 2년 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했다. 또한 재원의 확보를 후원 또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시되었고 이와 같이 모금된 기금의 잉여분은 개최국의 수입으로 할당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방글라데시는 자발적으로 금년부터 200달러씩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2. DESIGN & BUILD

선진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Design - Build 개념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이는 아직 아시아 국가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공사금액과 시간, 품질이 어우러져 일정 단계에 도달한 경우에만 통용될 수 있는 하나의 건물 구매 조건이다. 인도네시아와 스리랑카에서 더 심도있는 조사를 하기로 했으며 이는 건축설계의 고유 부분이 잠식당하는 책임을 서로 인지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3. ARCASIA DATA BANK

말레이시아에서 구축한 Data Bank에 각 회원국의 활동상황과 정보를 비축하기로 하였다. 이 Data Bank를 아시아 건축상과 건축자재의 홍보와 연계하여 제 2단계로 확충하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이익(광고 수입)등에 대해서는 본 협의회와 무관하게 진행하되 2년 후 진행과정은 2년 보관 후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각 회원국의 적극 참여를 주시시켰다. 이에 따라 Web Site나 Home Page가 구축된 회원국의 통신망 주소를 말레이시아에 통보하기로 하였다.

4. ARCHITECTURE ASIA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본 잡지가 발간되어 각 회원국에게 10부씩 무료로 배부되었고 국내에서 송부한 작품은 제작과정에서 설명서의 Text 변환 과정에 문제점이 발생하

여 단 한 개 작품, 울산 현대미술관만 게재되었다. 추후 해외에 송부하는 영문 Text는 꼭 Dxf. File로 작성하여 보내야 할 것이다. 한 부에 7달러씩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우승료는 별도 구입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5. HERITAGE

현대 건축물의 설계와 더불어 축조된 건축물 보호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각 회원국에서는 보호대상 건축물을 지정하여 본 협의회에 제출하기로 하였고 일반인에게도 건축물을 보호해야 하는 당연성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회원국은 10달러씩 납부하여 기금을 조성, 세부사항을 조사·연구토록 하였고 각 회원국은 우선 지정된 건축물 한 개를 5년간 무료로 보호하는 전문 용역을 대행하기로 하였다. 각 회원국이 지정하는 건축물은 본 협의회 보호 건축물 대상에 수록되며 회원국 이외의 아시아 국가에서 요청이 있을시에는 신청비를 5달러씩 받기로 하였다. 또한 각 회원국에서 본 사안으로 행사를 시행할 때 등록비의 0.5%를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 적립하기로 하였다.

6. HAND BOOK 및 CHECK LIST

본 협의회 규정 및 세부 운영규칙의 보완 및 수정이 논의되었고 총회 행사 중 아카시아상에 대한 수상은 격년제로 시행하는 Forum 기간에 시행하기로 하여 내년에 시행하기로 수정하였고 수정본에 대해서는 표지의 색깔을 달리 하여 최근본을 표시하기로 하였다.

7. 건축 교육

국제적인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축교육은 건축가의 지위 향상을 위한 적절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각 회원국의 실상을 홍콩의 Ron Poon에게 제출하기로 하였다. 제출하는 내용은 교육위원회에서 세부항목을 정하기로 하였다. 부연하여 각 회원국에 요청한 건축사 보수기준과 건축관련법에 대한 사항을 속히 제출기로 요청하였다. 제출된 내용은 정리하여 회원국의 위상에 적절한 Arcasia Model을 작성하여 UIA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8. GATS/WTO

세계무역기구의 요청에 따라 UIA에서 제시한 상호인증 표준안에 대한 ARCASIA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UIA 제출하기로 하였다.

- 1) 전문직의 상호인증 권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
- 2) UIA가 제시한 표준안은 전문용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안으로 본 협의회는 전면 거부한다.
- 3) UIA가 제시한 표준안은 본 회원국의 현황

이 파악되지 않고 일부 선진국에서 작성된 독단적인 것이며 건축 실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12월에 개최되는 Washing D.C 회의에 말레이시아 Dato Hjesa Mohamed 전 본 협의회 회장을 파견하여 본 협의회에 입장을 표명한다.

5) 각 회원국의 실정에 적절한 내용을 정부기관과 협의하고 건축가의 역할을 주지시킨다.

6) GATS/WTO 또는 ARCASIA의 입장을 전달한다.

7) 내년 개최될 북경 UIA 총회에 아시아 국가를 위한 별도의 분과를 구성해 줄 것을 중국측에 요청하고 본 회원국의 입장을 정리하여 UIA에 제출토록 한다.

9. ARCASIA상

금년도 Arcasia상 수상은 각 부분별 단독주거 부문에서는 인도네시아, 공동주택 부문은 일본, 공용부문의 연구시설에는 인도, 산업시설 부문에는 한국의 최승원씨가 설계한 "원실업 천안공장", 문화유산 부문에 일본이 각각 최우수작으로 결정되었다. 시상식은 내년도 Forum 개최국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10. FORUM 10

내년도 Forum 개최 신청은 방글라데시와 한국이 경합하였다. 전년도에 결정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선정되지 않아 다시 상정되었다. 방글라데시는 아직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어 ARCASIA 기본정신과 정부의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개최의사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우리 협회 또한 내년이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된 사실 등 국내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결국 무기명 투표에 의해 13개국 중 7표를 얻어 다음 개최지로 결정되었다. 세부일정과 내용은 한국에서 조정된 후 각 회원국에게 통보하기로 하였다.

11. ACA - 9

2000년도의 총회 개최지 신청은 인도와 말레이시아가 경합하였으며 10:3의 투표 결과에 의하여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기로 결정되었다.

12. 임원 선출

다음 회기 본 총회 회장에는 말레이시아의 P. Kasi가 단독 출마하여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부회장에는 Zone "A"에서 인도의 Atul Desai, Zone "B"에서는 홍콩의 Edward D Silva, 우리 협회가 소속된 Zone "C"에서는 일본 Hozumi 교수가 회원국의 추천을 받아 선출되었다. 교육위원회 회장에는 태국의 Wadi 교수가 재선출되었다. 또한 UIA Region IV 에 할당된 부회장에는 말레이시아의 Dato Hisham을 추천기로 합의하였다.

13. 신입 회원국 가입

작년부터 가입을 희망하여 읍져버로 참가했던 베트남 건축사협회 가입신청이 논의되었고 모든 여건을 Hand Book 에 의거하여 부회장단에서 검토한 후 회원국으로 결격 사유가 없음을 통보하였고 회원국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새로운 회원국이 되었다. 네팔의 대표도 입회신청을 위해 읍져버로 본 회의의 진행을 참관하였다.

제7회 아카시아 학생잼버리대회 참가보고

7th ARCASIA Student jamboree

양명석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by Yang Myung-Suk

11월 9일~10일

일탈의 기회가 주어졌다.

건축을 한다는 막연한 상상과 현실과의 괴리

감에 버거움을 느끼며 방향감을 상실한 듯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뜻하지 않았던 여행 기회가 주어진 것도 그렇지만 더욱 목적지가 "스리랑카"라는 너무도 낯선 이국땅이라는 것 만으로

도 필자에게는 분명한 자극이었고 일탈일 수 있었던 것이다. 여행의 목적은 분명 아시아지역 건축소통의 장이자 다분히 교육적 성격을 띤 "아카시아 학생잼버리대회" 참석이 목적이었지만 마음 한켠에 무겁게 자리했던 일상의 짐들을 잠시나마 벗어던져 버리고픈 남다른(?) 속셈이 가득했던 것이다.

어쨌든 발길은 새벽같이 서둘러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서 일행을 만나 인사를 하고 비행기를 탔다. 경유지인 싱가포르에서는 서너시간 정도 머물며 버스로 둘러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깨끗하고 이국적이면서도 다양한(나쁘게 말하면 국적불명의) 건축들이 공존하는 도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시내를 걸어다니면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었기에 그저 피상적인 분위기만을 눈에 익힌 정도였다.

밤이 깊어서야 콜롬보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를 맞은 것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와 후덥지근한 공기 그리고 활기 있어 보이는 사람들... 갑자기 닥쳐온 환경적 변화가 더욱 어리둥절케 만들었다.

숙소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여장을 풀었다.

11월 11일

아침에 세미나에 참가했으나 잘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주제역시 매우 포괄적이어서 원활한 토론이 되지는 못했다. 영어가 매우 짧기도 하였고... 오후에는 콜롬보를 둘러보는 시간과 쇼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11월 12일 - 13일

시기리아, 간달라마, 아누라다푸라, 미한탈레 등 난생처음 들어보는 그들의 유적과 그들이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스리랑카의 현대건축가 제프리 비와의 건축을 둘러보았다.

시기리아(Sygyriya)는 정글속을 한참을 뚫고 서야 다다를 수 있었다.

바위산의 원경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표정을 달리하였고 점점 더 압도적인 형태로 그 구체적 정체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 형상과 기운은 묘한 힘을 품고 있는 듯 했다. 이 바위산에 왕궁을 지은 고대의 왕과 가족사에 얽힌 피비린내 나는 권력과 욕망의 다툼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인간적 고독감이 싸한 피냄새를 머금은 채 그들에게 이방인일 필자에게 전해져 오고 있었다.

제프리 비와가 설계한 호텔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그의 건축은 풍토적이면서도 국제적이었다. 단순하면서도 명쾌한(동시에 변화무쌍한)공간이 연속되었고, 풍부하면서도 정교한 토속적인 텍스처와 조명처리는 신

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 건물이 끌어안고 있는 스리랑카의 자연은 그의 건축과 함께여서 더욱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밤의 어둠속으로 고요하게 내려앉은 모습이었다.

밤에는 그들의 민속공연과 각국에서 온 친구들과 함께하는 문화의 밤 행사가 있었고, 우리는 한없이 유치해지면서도 즐겁게 퐁퐁 수 있었다.

11월 14일

다음날 낮시간에 호텔에 다시 들를 수 있었다. 낮의 분위기는 밤의 그것과 또 다른 것이었다. 밤의 적막속에 묻혀있던 실체를 적나라하게 대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몇 군데의 사원과 박물관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그들의 조각들은 매우 역동적이고 아름다웠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일견 닮아있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이곳은 지금 몬순기여서 하루에 한번 정도는 순식간에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비를 쏟아붓곤 한다. 이런 것도 '이국' 땅에 와 있음을 자극하는 듯 했다.

콜롬보로 돌아와서 일정을 마치는 행사를 하고 'Architecture for the Asian Century' 라는 주제의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는데 한국학생대표로 같이 간 강효진 씨가 1등상을 받았다. 우리 모두들 아주 기뻐했고 이런 기분이 계속 이어져서 그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을 아주 재미있고 활기있게 보낼 수 있었다.

11월 15일

그곳을 떠나던 날, 제프리 비와의 주택들을 둘러보고(그의 주택은 무척이나 개방적이어서 내외부의 공간이 여러방식으로 열려 있었다. 이곳의 풍토여서 가능한 것이기는 하겠지만 무척이나 인상깊게 느껴졌다.) 여러나라 친구들과 같이 재잘거리며 식사를 하고 아쉬움을 달래며 고국으로 향했다.

그 이후

이 글을 쓰는 순간도 일상으로 무척이나 바쁘다. 그리고 이런 순간순간이 아주 소중한다는 생각을 한다. 스리랑카로의 여행과 학생잼버리참가는 좀 색다른 경험이었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지향점을 가질 것인가하는 문제에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많은 실마리를 제공했던 것 같다. 사람을 만나는 일과 새로운 것을 대하는 속에서 차별화된 나를 찾고자 하는 내면의 움직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